

토마스 캐리의 장원시: 자아형성의 도덕적 지형도*

이진아

한국의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말

토마스 캐리(Thomas Carew)는 존 던(John Donne)의 영향과 더 크게는 벤 존슨(Ben Jonson)의 영향을 받은 왕당파 시인들(Cavalier Poets)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찰스 1세의 총애를 받은 궁정인으로 궁정의 사실(私室, Privy Chamber)에서 직무를 맡을 정도로¹ 궁정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도 궁정 연애시들이다. 그래서 한편 그는 대담하고 정열적인 관능성이 농후한 「황홀」(“The Rapture”)과 같은 시를 쓴 궁정 연애 시인으로 대체로 기억된다. 다른 한편 캐리는 “보다 사회 참여적이고, 보다 ‘공적인’ 장르”(Jenkins 69)인 장원시(Country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¹ 캐리는 1625년부터 1640년 사망할 때까지 궁정 사실의 직무를 맡았다. 니콜라스 카알라일(Nicholas Carlisle)은 찰스 1세의 사실에서 직무를 맡았던 이들 중 캐리에 대해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의 문학적 재능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128-131). “. . . he was made a Gentleman of The Privy Chamber, and Sewer in Ordinary to the King, with whom he stood very high in favour, insomuch that to the last he esteemed him as one of the most deserving Wits about his Court, -And, so favourable an opinion did he entertain of his abilities in that respect . . . ”(129).

House Poetry)를 쓰기도 했다. 그의 장원시 「씩셈에게」(“To Saxham”)와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To My Friend G. N from Wrest”)는 존슨의 「펜즈허스트에게」(“To Penshurst”) 풍의 장원시들로, 존슨에서 시작되어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l)로 이어지는 영국 17세기 장원시 전통에서 시기적으로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문학사는 존슨의 「펜즈허스트에게」(1611)에서 영국 장원시 전통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² 물론 에밀리어 러니에(Aemilia Lanyer)의 「쿠크햄의 묘사」(“Description of Cook-ham,” 1611)가 존슨의 작품보다 시기적으로 5년 정도 앞선다고 추정되면서 장원시의 시조로서 「펜즈허스트」의 위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펜즈허스트」에서 존슨이 확립한 여러 문학적 관례들은³ 이후 등장한 장원시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존슨에 이어 헤릭, 캐리, 마블 등 당대의 뛰어난 시인들도 이러한 시풍에 합류하였고 이들의 장원시들은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가 열어낸 문학 장르의 타래 속에서 중요한 한 가닥이 되었다.

“벤의 아들들”(Sons of Ben) 중 한 사람이었던 캐리가 다른 어느 장르보다도 장원시에서 문학적 아버지에게 “가장 긴 경의를 표하고 있다”(Corns 208)는 지적이 함축하듯이, 일반적으로 캐리의 장원시들은 존슨의 작품의 모방작으로 주로

² 1950년대 G. R. 히바드(G. R. Hibbard)는 존슨의 작품에 5편의 시를 더 추가하여 모두 6편의 시들로 이루어진 장원시 장르의 전통을 영문학사적으로 최초로 정리했다. 존슨의 「펜즈허스트에게」와 「로버트 로쓰 경에게」(“To Sir Robert Wroth”), 로버트 헤릭(Robert Herrick)의 「루이스 펄버튼 경에게 바치는 찬가」(“Panegerick to Sir Lewis Pemberton”), 토마스 캐리의 「씩셈에게」와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 그리고 앤드루 마블의 「애플튼 하우스」(“Upon Appleton House”) 등이다. 이후 이 장르는 꾸준히 비평적 관심을 받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작품들이 장원시 전통에 포함되었다. 알라스테어 파울러(Alastair Fowler)와 같은 학자는 히바드의 분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Folwer, “Politics” 1) 장원시라기보다는 영지시(estate poems)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고(Fowler, *Cabinet* 1), 제프리 휘트니(Geoffrey Whitney)에서 알렉산더 포우프(Alexander Pope)에 이르기까지 77편의 시들을 모아 장원시 선집(*The Country House Poem: A Cabinet of Seventeenth-Century Estate Poems and Related Items*)을 출판하였다(1994).

³ 이 문학적 관례들은 물론 고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집과 그 영지를 노래한 장원시들 속에는 시골 장원과 그 소유주인 시인의 후원자를 찬양하고(Martial, *Epigram* III, 58), 궁정과 도시의 삶과 대조되는 시골의 삶을 높이 평가하며(Horatius, *Ille beatus*) 점차 사라져가는 환대의 덕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를 했던 고전 로마의 시인들의 영향이 녹아들어있다.

강조되고 비평가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해왔다. 예를 들면, 파올러는 캐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존슨을 모방했다고 평했고(Fowler, *Kinds* 155), 헤더 더브로우(Heather Dubrow)는 캐리의 「씩씩에게」는 존슨에게 매우 많은 빛을 지고 있어 뛰어난 중요성을 가진 작품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평했다(Dubrow 67). 이렇게 캐리의 장원시들을 존슨의 작품의 아류 정도로만 취급하는 비평적 견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매리 앤 맥과이어(Mary Ann McGuire)는 캐리의 「씩씩에게」는 장원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마이클 P. 파커(Michael P. Parker)도 캐리의 장원시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가 존슨에서 마블로 변화되어가는 장원시 전통에서 중간 시기에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양극화된 비평적 스펙트럼에서 장원시들이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들 속에 반론의 여지없이 단단히 박혀있다”(Dubrow 67)는 점을 인정하면, 캐리와 존슨이 한 세대 차이가 있고 존슨과 다른 사회 계층에 속했기에 캐리의 장원시들이 존슨이 확립한 문학 적 관례들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고만 주장할 수 없을 듯하다. 캐리의 두 작품들도 서로 시기적으로 거의 한 세대 차이가 있으므로 두 작품을 따로 다루어 장원시 장르에서 캐리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함께 다루면서 두 작품 속에 나타난 캐리의 장원시의 특성들을 논할 필요가 있다.

장원시는 장원과 그 소유주에 대한 예찬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건물의 관계, 건물과 건물의 관계 등의 주요한 도덕적 문제들을 모티프로 다룬다. 도시/궁정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시골 장원의 건물과 영지는 도시와 궁정에 머물던 시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공간들이다.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나 건축물이 자아형성 행위나 자아의 상징으로 볼 수 있듯이, 장원시를 통해 시인은 자아와 그 형성의 도덕적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리가 두 편의 장원시에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통해 자아나 자아 형성의 지형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휴 젠킨스(Hugh Jenkins)와 같은 학자는 장원시 장르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공적인 장르인 장원시에서 「웬즈허스트에게」를 장원시의 모델로 삼아(2-3), 그에 비해 캐리의 장원시들은 궁정연애시의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그 비전에 한계가 있고 지극히 사적이고 에로틱한 경향으로 흘러간다고 부정적으로 평한바 있다(69-78). 본 논문에서는 캐리의 장원

시들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특성들을 그의 도덕적 지형도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고 그 특성들을 17세기부터 점차 증가한 개인의 자아의식에 대한 관심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II. 「씩섬에게」

캐리의 첫 장원시 「씩섬에게」(1620)는 존슨의 선례를 따라 공동체와 개인, 자연과 인간, 귀족의 특권과 힘의 상징으로서의 장원 집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존슨의 단순한 모방작 이상의 섬세한 차별성들을 보여준다. 씩섬의⁴ 소유주인 크로프츠 집안은 캐리의 집안처럼 원래 대단하게 내세울 것은 없는 젠트리(gentry) 계층의 가문이었으나, 스튜어트 왕가에 헌신함으로써 1658년 찰스 2세로부터 씩섬의 크로프츠 경(Lord Crofts of Saxham)의 작위를 받아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집안이다. 1620년 캐리가 씩섬에 대한 장원시를 쓸 당시에는 크로프츠집안이 귀족가문이 되기 전이었고 씩섬은 중세 때 지어진 귀족 가문의 펜즈허스트와 같은 장원도 아니었다. 1620년대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영국 시골 삶의 양식에 변화가 일어났는데⁵ 무엇보다 토지 소유계층들은 존슨이 「펜즈허스트에게」에서 찬양하며 존속시키고자 했던 봉건적 공동체 가치들과 덕목들을 실천하는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McGuire 94-95). 그러한 변화는 존슨과 거의 한 세대 차이가 있는 캐리가 장원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영향은 「씩섬에게」의 첫머리에서부터 나타난다.

⁴ 「씩섬에게」의 소재가 된, 썬폭(Suffolk) 지방의 씩섬(Little Saxham 혹은 Saxham Parva 라 부름)에 있는 리틀 씩섬 홀(Little Saxham Hall)은 헨리 7세(Jenry VII) 때 건축되었으며 1531년부터 크로프츠가(the Crofts)의 소유가 되었다(*Concise Description* 291; McClung 109). 캐리와 이 집의 인연은 1619년 서베리의 허버트 경(Lord Herbert of Cherbury)이 외교 임무 차 프랑스에 갈 때 당시 씩섬의 영주였던 존 크로프츠 경(Sir John Crofts)의 아들 존(John)과 캐리가 함께 갔을 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씩섬은 궁정 사람들이 승마 경주를 즐겼던 뉴마켓(Newmarket)을 오갈 때 자주 들르던 곳으로 이곳에서 궁정 가면극이 자주 상연되었고 그로 인해 시인들도 이곳을 자주 방문하였다(Williams 40).

⁵ 특히 맥과이어는 캐리의 작품들이 존슨의 작품들과 다른 특성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맥락에 주목한다.

서리와 눈이 문밖에 있는 저 아름다움을—
 정원들, 과수원들, 산책길들—
 내 눈에서 닫아 잠가
 너의 모든 즐거움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구나.
 허나 썩썩, 너는 문 안에서
 네 스스로 참으로 멋지고,
 네 지붕을 내부의 행복으로 축복하는
 자생(自生)의 달콤함으로 꽂차있어,
 마치 겨울은 네 저장고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거나
 봄은 거기에 더 이상 보태지 못하는 듯하다.

Though frost, and snow, locked from mine eyes
 That beauty which without door lies—
 Thy gardens, orchards, walks—that so
 I might not all thy pleasures know;
 Yet, Saxham, thou within thy gate
 Art of thyself so delicate,
 So full of native sweets that bless
 Thy roof with inward happiness,
 As neither from, nor to thy store
 Winter takes aught, or spring adds more. (1-10)⁶

상춘의 '펜즈허스트에게'와 달리 「썩썩에게」의 계절은 추운 겨울이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은 봄과 달리 인간으로 하여금 건물 밖을 향하게 하기 보다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바깥세계와 단절되고 자물쇠로 잠근 듯(locked) 격리되어 안에서 안전함을 찾게 만든다. 겨울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작품 첫 머리부터 공간은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안”(within)과 “밖”(without)의 이분법적 구조로 뚜렷이 구분되고, 밖에 대해 배타적인 안전한 공간으로서 안이 설정된다. 보통 장원시의 배경이 되는 전형적인 이분법은 시골 대 도시/궁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캐리는 작품의 서두에서 자연 대 인간의 구조를 통해 안과 밖의 이분법적 구조를 설정한다. 안과 밖이 분리되면서 밖의 자연과 안의 인간도 서로 독자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다. 물론 자연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 작품에서 자연은

⁶ 작품인용은 Fowler, ed. *Country House Poem*로부터 한다.

인간과 화합하는 자연이 아니라 무관심한 듯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해를 주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는 존재이다. 외부 자연과 그 질서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오롯이 인간에게 속한 공간은 자연 질서와 별개인 인간의 정체성, 자기 세계의 독립성, 자주성을 보다 강하게 암시한다.

당시 시골의 장원 건물과 영지는 매우 공적인 장소였다. 장원은 지방 엘리트 계층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었고 영지 주위 수천 에이커의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의 중심지로서 행정가인 시골 지주의 권위를 상징하고 지주의 환대의 중심지였고 온갖 야외 놀이와 여흥의 장소였다(Stone, *Elite* 199-220). 그런데 “within,” “native,” “inward”와 같은 내향성을 함축한 표현들로 인해 백섬은 공적인 장소라기보다는 먼저 외부에 대해 거리를 둔 내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단순히 겨울이라는 자연 조건 때문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 개인주의에서 시작되어 17세기에 더욱 깊어진 내적 자아와 프라이버시, 내향적인 인격에 대한 관심과 자각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듯하다. 안과 밖으로 세계를 구획하는 행위는 자아가 자기 이해와 정체성 설정을 위해 세계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 행위이다. 현대적 자아의 개념은 “내향성”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안-밖”의 대립은 현대인의 자기 이해에 있어 중요하다(Taylor 111-14). 내적인 성향(interiority)의 기준은 안-밖의 구별에 있고, 그러한 구별은 현대적 개인성의 결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Sawday 38). 물론 자아라는 개념은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이론들이 무수하기에, 캐리가 작품의 서두에서 내부, 안을 강조한다고 해서 곧 그것을 자아 인식의 현대성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매우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자신을 어느 특정한 관점이나 시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말하자면 뒤로 물러나 그 관점이나 시각을 밖에서부터 바라보는 능력”(McIntyre 126)이 현대적 자아의 근본적인 특징이라 할 때, 캐리의 거리두기와 내향성이 현대인의 이러한 자의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의 공간설정 행위는 현대적 자아의 정체성 인식행위의 근대 초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 자아, 내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17세기부터 삶의 방식에 있어 개인적인 사생활이 점차 강조되었다. 특히 로렌스 스톤(Lawrence Stone)과 마크 지루아드(Mark Girouard)와 같은 학자들은 17세기 영국의 건축물에서 개인 방, 밀실, 개인 휴식

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들이 점차 늘어난 것을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적이면 내향적인 경향과 관련짓는다. 그런 개인성과 내향성이 사적인 내부 공간과 연관되어 발전되었다는 사실은,⁷ 캐리의 내향적 공간 설정을 당시의 개인주의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인간 정신은 매우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아를 어떤 공간과 유비하여 이해하기에(Taylor 25-32), 캐리가 썩셈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본적으로 안과 밖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의 장원시의 지형도를 자아를 형성하는 행위의 유비라고 볼 수 있게 한다. 캐리는 건물 밖과 안이라는 경계 짓기를 통해 건물의 단단한 고정적인 실체와 같은 확고함을 자기 정체성에 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도는, 브루스 킹(Bruce King)의 표현을 빌리면, 그의 시 세계의 찬연한 표면아래 숨어있는 “인간의 내적 현실의 극심한 혼돈에 문명화된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547)라고도 할 수 있다.

겨울이라는 상황은 크로프츠를 자연 질서로부터 독립시킬 뿐 아니라 썩셈이 이웃에 베푸는 자선과 환대에 시기적절한 정당성도 부여한다.

차갑고 얼어붙은 대기는, 만일 너의 보호가 없다면,
 가난한 이들을 많이 굶주리게 했으리라,
 그들의 기도는 네 식탁에 다른 어느 식탁보다
 훨씬 많은 풍요의 축복을 빌어주었고,
 겨울철은 네 이웃의 널판 식탁에
 조야한 음식조차 거의 마련해주지 않았다.

The cold and frozen air had sterved
 Much poor, if not by thee preserved;
 Whose prayers have made thy table blest
 With plenty, far above the rest.
 The season hardly did afford
 Course cates unto thy neighbour's board. (11-16)

⁷ 물론 메리 토마스 크레인(Mary Thomas Crane) 같은 학자는 17세기 영국에서 만드신 내부 공간 뿐 아니라 야외, 외부 공간도 개인성, 내향성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은밀한 행위, 사적인 행위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썩썩은 황금시대에 자연이 생산했던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자연을 대신하여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에게 환대와 자선의 덕을 실천하는 매우 이상적인 장소이다. 썩썩의 이웃은 존슨의 시에서 영주에게 온갖 수확물을 기꺼이 바치는 풍요한 이웃들과 달리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가난한 이웃들은 썩썩이 베푸는 자선의 손길에 매달릴 뿐이며 겨울은 썩썩의 관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렇게 자비를 입은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를 풍요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한으로 굶주린 이웃에 대한 썩썩의 환대는 썩썩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이상적으로 포장한 것이 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보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⁸ 썩썩은 “바로 시인 자신이 먹는 집인 자비의 섬”(29)으로 이 집의 내향성은 외부와의 단절의 성격이 강해질 때에는 자기 성찰의 계기라기보다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된다.

「썩썩에게」에서 주목할 만하게 등장하는 종교적 비유와 상징들은 이 집을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장치가 된다. 존슨이 펜츠허스트가의 사람들의 종교성을 구체적으로 칭송했다면 캐리는 암시적으로 칭송한다. 지주로서 착취한 결과가 아니라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바친 축복의 기도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썩썩은 노아의 “방주”(the Ark, 22)와 같은 곳이다.⁹ 방주의 비유는 캐리의 시들이 주로 다루는 “공공연한 논의에서 감추어진 현실의 측면”인 심리적 충동들, 구체적으로 “따뜻함과 안전에 대한 필요와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King 546)을 표현한다. 또한 방주로서의 썩썩은 또 다른 이분법적 구도를 암시한다. 방주와 같은 썩썩 안에 있는 이들과 밖에 있는 이들은 구원받은 이들과 구원받지 못할 이들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방주의 비유는 썩썩에게 선택

⁸ 윌리엄스의 『시골과 도시』(Country and City)는 장원시에 대한 연구에 있어 결정적인 시각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영국시골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사의 맥락에서 시골을 정치 경제의 중심인 도시와 관련지음으로써 소박하고 자연적이고 순수한, 일종의 황금시대인 시골이라는 이 장르에 대한 종래의 몰역사적인 시각의 이상주의적 신화를 벗겨내고 탈신화화하였다.

⁹ 썩썩을 물위에 떠있는 피난처, 보호처인 방주로 표현한 것은 썩썩의 실제 지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캐리가 작품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썩썩은 깊은 해자에 둘러싸여있고 도개교(跳開橋)로 출입이 가능한 중세식 성채의 방어체제를 갖춘 곳이었다(Fowler, Cabinet 88).

된 민족이 누리는 특권을 부여하여 지주의 특권의식이 조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우월감을 종교적으로 이상화 시키고 있다.

썩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캐리는 존슨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그 점은 썩셈의 개방적인 환대의 덕에서 잘 나타난다. 자연 질서로부터 독립된 썩셈은 하나의 소우주로서 “내부에 태양들”(34)을 가지고 있고 자연 세계를 이루는 원소들, 물, 흙, 공기가 그 태양 같은 집안의 불에 종속되는 곳이다(29-30). 그 불빛은 사람들을 이 집으로 이끌어 환대를 받게 하는데 존슨의 시에서 총칭된 환대받는 이웃들과는 달리 환대를 받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밤중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36), “지친 순례자”(38), “가난한 이들”(50), “낮선 이들”(52)이다. 이러한 구체성은 존슨의 작품에서처럼 시혜하는 자와 시인을 비롯하여 시혜받는 자들을 동등한 위치에 두어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보다는 시혜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더욱 뚜렷이 한다. 존슨은 「펜즈허스트에게」 시인 자신이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마음껏 펜즈허스트의 풍요를 공유했던 점을 펜즈허스트의 가장 큰 환대의 덕으로 표현하고 있고 시드니 가문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썩셈의 환대를 받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지목되고 시인 자신은 그 환대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또한 썩셈의 주인도 이름 없이 “주인과 하인”(42)으로 단 한번 언급될 뿐이다. 이런 차이는 캐리와 존슨의 신분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벽돌공의 의붓자식 출신으로 로버트 시드니(Robert Sidney) 경의 후원에 의존하는 존슨은 보다 낮은 신분의 자신이 받은 환대가 이 집에 대한 대단한 칭송 거리가 될 수 있다. 시인으로 환대를 받은 그가 필립 시드니와 그 일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칭송하는 것은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동등한 환대를 누리는 시인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썩셈을 친구로서,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방문한 캐리는 그 집의 주인에 대해 존슨 식의 찬사를 할 이유가 없었을 듯하다. 크로프츠와 같은 계층에 속하는 캐리에게 있어서 환대는 자신보다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향한 자선행위이며 그런 자선은 바로 캐리가 속한 계층의 도덕적 우수성의 표현인 것이다. 집안의 “생기 넘치는 불빛”(cheerful beams)은 밖의 어둠과 대조를 이루어 이 집이 환대해야 할 대상들과 여전히 “멀리”(aloof) 거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썩셈의 이와 같은 자족적인 거리감이 줄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배타성은 “적”(56), “도

독들”(57)에게 조차 마음껏 베푸는 보다 극단적으로 관대한 태도, 즉 “달라는 대로 주라”(루카 6.30)는 성경말씀을 연상시키는 종교적 암시들을 통해 상쇄된다.

III.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

캐리의 또 다른 장원시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는 「씩씩에게」보다 약 20년 후(1639)에 쓰였다. 이 작품 또한 존슨의 문학적 관례를 따르지만 앵무새 같은 모방부분이 ‘씩씩에게」보다 훨씬 적고 캐리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장원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친구 G. N.에게¹⁰ 보내는 서간문 형식의 이 작품은 캐리가 1639년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일으킨 전쟁(Bishop’s War)에 참전한 후 레스트 파크(Wrest Park)에 머물 때 쓴 작품이다. 이 전쟁은 흔히 17세기 영국 내란의 전주곡이라 불리는데, 이 전쟁경험이 레스트의 공간 설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적인 내향성과 안전하고 자족적인 고립성을 추구하는 원인이다.

작품의 첫 장면에서 캐리는 온화한 대기 속에 따뜻한 봄이 무르익은 레스트와 추운 폭풍우 몰아치는 황량한 웨일즈 산악지대와 트위드(Tweed) 강둑, 스코틀랜드를 연상시키는 “황량한 북쪽”(7)을 서로 대비시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밖에 해당하는 저기로, 잉글랜드에 있는 레스트를 안에 해당하는 “여기”로 설정한다. 그리고 곧 캐리의 안-밖의 공간설정은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다.

여기는, 임신한 대지가 향긋한 이슬에 잠겨있고

.....

자생적인 아로마를 풍긴다.

우리는 이국의 수지(樹脂)나 멀리서 가져온 진액,

휘발성의 증류주, 불순물이 섞인 합성물을

사용할 때와 달리, 자연의 싼 비용으로

훨씬 더 진품의 향긋함으로 감각을 상쾌하게 한다.

¹⁰ G. N.은 찰스 1세의 궁정 사실에서 캐리와 함께 일했고 1639년 전쟁에도 함께 참전했던 길버트 노쓰(Gilbert North)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전히 그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 Maclean 179, 주 7참조.

Here steeped in balmy dew, the pregnant Earth

 Whose perfumes through the ambient air diffuse
 Such native aromatics, as we use
 No foreign gums, nor essence fetched from far,
 No volatile spirits, nor compounds that are
 Adulterate, but at Nature's cheap expense
 With far more genuine sweets refresh the sense. (9, 13-18)

여기서 캐리의 이분법의 기준은 감각적 경험이다. 여기와 저기, 즉 잉글랜드와 외국의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된 감각적 경험은 레스트라는 공간을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외국과 잉글랜드의 대비는 옛 영국(중세나 튜더 초기의 영국) 시골의 덕목들을 존슨 등 여러 시인들이 고전 모델들을 통해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 비판했던 당시 풍속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고전 로마 시인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사치품들이 넘치는 것에 대해 풍자했듯이, 당시 풍속에서 “새롭고 이국적인 소비품들에 애착하는 것은 낭비일 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파괴하는 사치와 유행에 아무 생각 없는 중독의 표지”(Smuts 95)였다. 레스트의 안과 밖의 공간 설정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잉글랜드와 영국의 다른 지역, 잉글랜드와 외국들 간의 경계 짓기의 유비로 확대될 때, 캐리가 그리는 레스트의 지형도는 그의 사적인 자아뿐 아니라 궁정인으로서의 또 그가 속한 왕당파 영국인으로서의 자아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품들 뿐 아니라 장원시의 소재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가치판단이 내려졌고 건축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장원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이렇게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아름다움들이
 이 저택을 인위성이 없는 실용적인 단아함으로
 축복한다. 여기는 건축가가
 재간을 부려 세운
 조각한 대리석, 솜씨, 반암 건물이 아니라,
 환대를 위해 지은 집이다.
 번쩍거리는 돌로 만든 호화로운 굴뚝이
 낮선 이의 눈을 끌어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
 도릭식이나 코린트식 기둥들이
 이 건축물의 벗은 얼굴을 장식으로 꾸미지 않는다.
 이 집주인과 안주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에 즐거워한다.

Such pure and uncompounded beauties bless
 This mansion with an useful comeliness,
 Devoid of art; for here the architect
 Did not with curious skill a pile erect
 Of carved marble, touch, or porphyry,
 But built a house for hospitality:
 No sumptuous chimney-piece of shining stone
 Invites the stranger's eye to gaze upon,

 No Doric, nor Corinthian pillars grace
 With imagery this structure's naked face:
 The lord and lady of this place delight
 Rather to be in act, than seem in sight. (19-26, 29-32)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이 “집은 살기위해 지어지는 것이지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균형보다는 실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427)고 주장했듯이,¹¹ 장원시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장원 건물의 실용성(use)을 찬양한다. 캐리도 그 관례를 따라 레스트 건물의 외적 형상을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내적인 진정성의 상징으로 칭송하고 있다. 캐리가 아마도 그의 마지막 작품일 이 장원시를 쓴 시골 장원 집은 헨리 드 그레이(Henry de Grey) 백작 집안 소유로 15세기 말경에 지어졌다(McClung 111). 따라서 옛 영국적인 방식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고 옛 영국 시골의 전통적 덕목을 실천하도록 현대의 홀이 건물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된 집이다. 레스트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캐리가 비교하는 엄청난 건물들(일명 prodigy houses)은 주로 엘리자베스 말기와 제

¹¹ 베이컨이 강조하는 건물의 실용성은 장원시의 중요한 모티프들 중의 하나이지만, 사실 그는 “건물에 대하여”(Of Building)에서 장원시들에 등장하는 집들보다 훨씬 장대한 규모의 시골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임스 1세 때 왕의 행차 때 그 환대를 위해 당시 정치적 거물들이 지은 궁전 같은 저택들이다(Stone, *Elites* 205-10). 1570년에서 1615년 사이 거대한 규모의 정치적 여흥을 위해 지어진 이 화려하고 장대한 건물들은 결국 권력과 명예, 사치스러운 여흥을 위한 ‘교만의 집’(House of Pride, *Faerie Queene* 1.4)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짓고 꾸민 이 대궐 같은 집들과 그 허세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런 집들은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도릭식, 코린트 식 같은 유럽풍의 건축 양식을 애용하였는데(Smuts 90), 존슨은 당시 귀족층이 선호한 건축양식들보다 옛 잉글랜드적인 펜즈허스트의 집을 소박하고 진실한 덕이 살아있는 곳으로 칭송하였다. 캐리도 존슨의 선례를 따라 레스트는 “허영 많은 건축가가 진실한 실용성 보다 / 외적인 화려한 치장에 더 많은 경비를 들인 / 보다 오만한 건물들”(prouder piles, where the vain builder spent / More cost in outward gay embellishment / Than real use; 53-55) 보다 더 가치 있고, 집의 진정한 실용적인 환대의 봉사 에 더 적합하다고 찬양한다. 마치 내적 자아의 진정성을 신뢰한 르네상스시대에 꾸밈없는 평이한 문체(plain style)가 개인적인 자아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한다고 여겼던 것처럼(Shuger 5), 그는 질박하고 꾸밈없는 레스트의 외관이 그 소유자의 내적 진정성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집에서 베풀어지는 환대는 펜즈허스트와 썩썩의 환대와 차이가 있다. 펜즈허스트의 커다란 중세풍 홀에서는 사회 계층의 구분 없이 평등한 환대를 받고 시인도 신분격차가 있는 주인과 다름없이 친구로서 혹은 가족의 일원처럼 펜즈허스트의 풍요를 누린다. 물론 존슨이 이러한 칭송을 통해 시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주장하고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존슨식 환대는 레스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 이곳의 환대는 썩썩에서처럼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겨냥한 자선적인 환대도 아니다. 레스트의 환대는 지극히 계급적이다. 레스트의 홀에서 공동체 일원들은 각각 사회 계층에 따라 각각 다른 식탁에서 다른 종류의 대접을 받는다(35-45). 하인, 소작인, 이웃사람들 즉 평민들은 평민대로, 좀 더 우월한 가문출신들은 그들대로, 부와 지위를 가진 보다 높은 계층 귀족들은 “평민들과 분리되어, 자유롭게 / 영주의 식탁에 앉아”(severed from the common, freely sit / At the Lord’s table; 41-42) 환대를 받는다. 이 계층의 사람들만이 서로 동등한 친구들이고 최고의 질의 음식을 원탁에서 나눈다. 이러한 계층의 구분은 「썩썩에게」에서처럼 다분히 존슨과 캐리의 신분의 차

이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평민이나 다름없는 존슨과 달리 캐리는 이 작품을 쓸 당시에 찰스 1세 궁정의 가장 내밀한 사실(Privy Chamber)에서 직무를 담당하였고, 찰스의 총애를 받은 궁정인으로 궁정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캐리에게 계급의식을 떠난 도덕적 요구나 공동체 책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독자가 범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오류일 것이다. 따라서 캐리에게서는 콘즈가 말한 계급구조에서 오는 “사회적 신랄함”(Corns 208)이 결여되었을 수밖에 없고, 레스트에서의 환대는 철저한 계급주의적 환대인 것이다.

레스트는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경계 지어진 잉글랜드에 속한 공간으로서, 이국적인 요소들과 거리가 있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공간이다. 그 내부는 풍요의 뿔(Cornucopia)과 같은 곳(57-60)으로 썩썩처럼 외부와 거리를 두고 외부의 상황들과는 상관없는 자족적인 공간이다. 캐리는 이러한 특성을 레스트의 실제 지형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썩썩과 유사하게 레스트는 이중의 해자(核字)에 둘러싸여 밖의 세계와 단절되고 안의 세계는 외부의 자연조건, 사회상황 등으로부터 차단되고 보호받는 자족적인 소우주이다.

이 섬 저택은 한 가운데 위치하여,
 이중의 수정 같은 하늘로 감싸여있고,
 그 안에는 수중 별좌들이 떠다닌다.
 우리의 물고기들, 백조들, 어부들 그리고 배,
 우리의 상쾌한 호수에서 별에 탄 사지를
 식히고 싶어 하는 저위의 저들이 질투하나,
 그들은 황량한 천구(天球)에 단단히 못박혀있고,
 늘어난 우리 것들은 여기 풍요로운 물속에서 놀며
 우리의 좁은 바다의 고리길 속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닌다.

This island Mansion, which, i'th'centre placed,
 Is with a double crystal heaven embraced,
 In which our watery constellations float,
 Our Fishes, Swans, our Waterman, and Boat,
 Envied by those above, which wish to slake
 Their star-burnt limbs in our refreshing lake,

But they stick fast nailed to the barren sphere,
 Whilst our increase in fertile waters here
 Disport, and wander freely where they please
 Within the circuit of our narrow seas. (79-88)

여기서 캐리는 공간을 해자 밖의 대우주 천체와 해자 안의 소우주 레스트로 구분한다. 불화와 갈등과 혼란의 전운이 감도는 영국처럼 황량하고 법칙에 매인 대우주와 풍요롭고 자유로운 소우주 레스트는 존재의 사슬(Great Chain of Being) 사상에서처럼 질서와 화합의 관계에 있지 않다. 되풀이되는 “우리”라는 표현은 소우주의 공간을 저들과 구분되는 우리의 공간, 저기로부터 넘어올 수 없는 거리를 둔 여기의, 안의 공간으로 만든다. 물 위에 떠있는 이 소우주 레스트는 바다라고 하는 해자에 싸인 영국의 상징으로(Malcolm 41), 그 영국은 캐리의 왕당파의 영국일 것이다. 소우주로서 레스트의 특성들은 왕의 사실의 직무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캐리의 의식의 경험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왕의 침실, 화장실, 개인 식당 등으로 구성된 사실 구획은 왕궁에서 나머지 부분들과도 단절된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구획에 속하며, 왕이 외부와 가장 효과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 담당자들이 있었고, 그 총책임자(Groom of the Stool)는 “왕의 시종들 중 가장 막강하고 신임 받는 사람들 중 한 사람”(Girouard 58)이었다. 캐리가 이런 사적이고 내밀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봉직할 경험들은 공간에 대한 그의 내향적이고 사적이고 독자적인 의식을 키웠을 것이고 공간 안에서의 여러 관계들에 대한 그의 의식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과 의식은 그가 레스트를 안전감, 풍족감, 내밀함을 가진 궁정의 사실과 유사한 공간으로 설정하는데 작용했을 수 있다.

방주인 썩썩보다 더 고립된 보호처로 경계 지어진 레스트의 세계는 그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wander freely) 세계이고 그 유희적이고 질서에 역매이지 않은 점은 캐리의 연애시의 탕아적인 자유주의(libertinism)를 연상시킨다. 레스트의 세계는 상업의 신인 베르툼누스(Vertumnus)와 포모나(Pomona)의 구애와 사랑, 새벽의 신의 아들 제피루스(Zephyre)와 꽃의 여신 플로라(Flora)의 사랑과 연애, 술의 신 박쿠스(Bacchus)

와 풍요의 여신 세레스(Ceres)의 육체적 사랑의 결합 등이 이루어지는(89-106) 신화화된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유희와 즐거움들로 가득하다. 지극히 잉글랜드적인 덕과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여흥이 가득한 자족적이고 안전한 레스트는 캐리가 궁정인으로서 왕당파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신원의식을 형성해주는 원천과도 같이 보인다. 시인은 전쟁터와 같은 외부 세계와 따로 떨어져 풍요를 누리며 계급적 경계 안에서 환대를 베풀고 해자로 둘러싸인 소우주와 같이 안전한 공간 속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나 해자 별무리들이 그 좁은 바다 속에서만 자유롭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듯이, 캐리는 곧 현실의 또 다른 면인 밖의 세계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는 즐기면서 이 축복받은 평화의
열매를 맛보네, 자네가 전쟁의 상징,
수토끼와 수사슴 사냥을 하며
우리 전쟁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려 애쓰는 동안.

Thus I enjoy myself, and taste the fruit
Of this blest peace, whilst toiled in the pursuit
Of bucks, and stags, the emblem of war, you strive
To keep the memory of our arms alive. (107-110)

겨울의 위협도 독자적인 풍요를 통해 배제하고 적대적인 외부인들조차도 그리스도교적 관대함으로 포용하는 썩셈과 비교할 때, 레스트는 그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한듯하지만 결국 캐리는 그 안에서 전쟁의 위협을 잊지 못한다. 캐리는 레스트라는 공간을 통해 위협받고 흔들리는 자신의 세계를 확고히 하여 그 안에서 안정감과 보호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캐리가 지금까지 배타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고립시켜 경계 지은 소우주 공간은 다가오는 정치적 갈등과 내란의 전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등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살아있는 무기들”(arms alive)인 것이다.

IV. 나오는 말

캐리는 시골 장원의 문학적 지형도인 장원시에서 계속적인 경계 짓기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계층적 문화적 정체성이 그 건물과 영지와 같이 확고한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하여 캐리의 공간 이분법들은 사적이고 내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낸다. 맥파이어는 썩섬을 “내부 낙원”(99)이라 하고 젠킨스는 “사적인 유토피아”(76)라고 불렀는데 레스트도 일종의 그런 장소이다. 캐리는 썩섬과 레스트에게 서구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설정하는 진정하고 개별적이고 선한 내면의 어떤 실재와 같은 자아(Porter 1-2)가 가진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인 장르라 일컬어지는 장원시에서 캐리가 보여주는 사적이고 내향적인 특성들은 그의 한계라기보다는 17세기부터 서구 유럽에 싹트기 시작한 내향적 공간으로서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관심의 발로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장원시, 즉 장원 건물과 영지의 문학적 지형도를 자아-정체성의 지형도에 대한 유비라 볼 때, 긍정인이었던 캐리의 장원시들에 나타난 부단한 공간 설정은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이 말한 르네상스 시대 긍정인들의 자아 형성의 한 행위처럼 보인다. 「썩섬에게」에서는 종교적 상징과 비유가 실어주는 무게로 썩섬의 세계는 내적으로 견고하고 단단함을 가진 실체로 보인다. 그런데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에서는 그 확고함과 진실은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세계에 넘치는 덧없이 사라지는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들처럼 무너져 내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캐리는 공간 설정을 통해 형성한 자아-정체성이 성채와 같은 변함없는 굳건함과 안전함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부단한 공간설정은 그 자아가 세워지고 허물어지기도 하는 건축물처럼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들과 욕망들,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 등에 의해 부단히 구성되고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장원시, 토마스 캐리, 벤 존슨, 「썩섬에게」, 「친구 G. N.에게, 레스트에서」, 내향성, 자아형성, 공간 설정, 경계 짓기, 도덕적 지형도

인용문헌

- A Concise Description of Bury St. Edmunds, and Its Environs within the Distance of Ten Miles.* London: Longman, 1827.
- Bacon, Francis. "Of Building." *Francis Bacon*. Ed. Brian Vickers. Oxford: Oxford UP, 1996. 427-30.
- King, Bruce. "The Strategy of Carew's Wit." *Ben Jonson and the Cavalier Poets*. Ed. Hugh Maclean. New York: Norton, 1974. 540-48.
- Carlisle, Nicholas. *An Inquiry into the Place and Quality of the Gentlemen of His Majesty's Most Honorable Privy Chamber*. London: Pall Mall, 1829.
- Corns, Thomas N. "Thomas Carew, Sir John Suckling, and Richard Lovela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English Poetry: Donne to Marvell*. Ed. Thomas N. Corns. Cambridge: Cambridge UP, 1993. 200-20.
- Crane, Mary Thomas. "Illicit Privacy and Outdoor Space in Early Modern England." *Journal for Early Modern Cultural Studies* 9.1 (2009): 4-22.
- Dubrow, Heather. "Guess Who's Coming to Dinner? Reinterpreting Formalism and Country House Poem." *Modern Language Quarterly* 61.1 (2000): 59-77.
- Fowler, Alastair, ed. *The Country House Poem: A Cabinet of Seventeenth-Century Estate Poems and Related Items*. Edinburgh: Edinburgh UP, 1994.
- _____. "Country House Poems: The Politics of a Genre." *Seventeenth Century* 1.1 (1986): 1-14.
- _____. *Kinds of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enres and Modes*. Cambridge: Harvard UP, 1982.
- Girouard, Mark. *Life in the English Country Hous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New York: Penguin, 1980.
- Hibbard, G. R. "The Country House Poem of th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 19 (1956): 159-74.
- Jenkins, Hugh. *Feigned Commonwealths: The Country-House Poem and the Fashioning of the Ideal Community*. Pittsburgh: Duquesne UP, 1998.
- Kelsall, Malcolm. *The Great Good Place: The Country House and English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1993.
- Mary Ann, McGuire. "The Cavalier Country-House Poem: Mutations on a Jonsonian Idea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19.1 (1979): 93-108.
- Maclean, Hugh, ed. *Ben Jonson and the Cavalier Poets*. New York: Norton, 1974.
- McClung, William Alexander. *The Country House in English Renaissance Poetry*.

-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7.
- M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2nd ed. Notre Dame: Notre Dame UP, 1984.
- Parker, Michael P. "To my friend G. N. from Wrest': Carew's Secular Masque." *Classic and Cavalier: Essays on Jonson and the Sons of Ben*. Ed. Claude J. Summers. U of Pittsburgh P, 1982. 171-91.
- Porter, Roy, ed. *Rewriting the Self: Histories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London: Routledge, 1997.
- Sawday, Jonathan. "Self and Selfhood in the Seventeenth Century." Porter 29-48.
- Shuger, Debora K. "The Power Within: The Grand Style and Problems of the Self in Renaissance Literature." *Ball State University Forum* 28.1 (1987): 5-19.
- Smuts, R. Malcolm. *Culture and Power in England 1585-1685*. New York: St. Martin's, 1999.
- Stone, Lawrence, and Jeanne C. Fawtier Stone. *An Open Elite? England 1540-1880*. Oxford: Oxford UP, 1986.
- Stone, Lawrence. *The Crisis of the Aristocracy 1558-1641*. Oxford: Oxford UP, 1967.
- _____.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1979.
- Taylor, Charles.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P, 1989.
- Williams, Raymond. *Country and City*. Oxford: Oxford UP, 1973.

ABSTRACT

Thomas Carew's Country House Poems as Moral Topographies of Self-Formation

Jin-Ah Lee

Thomas Carew's "To Saxham" and "To my friend G. N. from Wrest" belong to the country house poetry genre, whose seminal work is Ben Jonson's "To Penshurst." As building or house can be a symbol or an analogy of forming a self, Carew's literary localizations of Saxham and Wrest can be viewed as moral topographies of self-formation. In his country house poems, Carew repeatedly demarcates spaces in terms of the opposition of inside vs. outsid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understanding of the self. The inwardness or interiority, privacy, and the distanced attitude are distinct features of these poems of public genre. They have been sometimes pointed out as Carew's defects, but they could be manifestations related to th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inner self and privacy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His continuous drawings of inner/outer boundaries may reflect his desires to build a firm self or identity and to give solid verities to himself and his royalist England. He is somewhat successful in "To Saxham." However, the solidity of the distanced, self-sufficing inner world of Wrest is precariously disturbed by its transient beauties and pleasures of sense and sensuality and the looming threats of the Civil War.

Key Words | Thomas Carew, Ben Jonson, "To Saxham," "To my friend G. N. from Wrest," inwardness, self-formation, localization, demarcation, moral topography